



배우 김인권, 정지훈, 오연서, 김수로(왼쪽부터)가 19일 열린 SBS 드라마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냥 죽기 억울한 영혼이 돌아왔다

SBS 수목극 ‘돌아와요 아저씨’ 24일 첫 방송 ... 일본소설 ‘쓰바키야마 과장의 7일간’ 원작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저승에선 자살이라며 지옥에 가라고 한다. ‘뺨골 빠지게’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오랜 기간 천천히 준비해온 자살행위란다.

오는 24일 첫 방송하는 SBS TV 새 수목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뒤 애야 ‘질문 살았구나’하는 영혼들이 현세로 돌아와 겪는 좌충우돌을 담았다.

백화점 만년과장 김영수(김인권 분)와 전직 보스 한기탁(김수로)은 각각 심장마비와 교통사고로 죽어 저승으로 갔지만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들은 천국으로 가는 열차에서 난동을 피운 끝에 각각 백화점 점장 이해준(정지훈)과 절세 미녀 홍란(오연서)으로 거듭나 현세의 가족과 첫사랑을 다시 만날 ‘역승’의 기회를 얻는다.

‘생계형’ 과장으로 아내 신다혜(이민정)에게 늘 미안했던 영수는 전생과는 전혀 다른 외모로 다혜를 유혹하고, 하필이면 여자가 된 기탁은 첫사랑 송이연(이하늬)의 곁을 땀돈다. 영혼이 남자인 여자

홍란 역을 맡아 “김수로 선배님의 영혼을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고 밝힌 오연서는 무려 전직 보스였던 한기탁의 거친 말투와 몸짓을 능청스럽게 연기해낸다.

오연서는 ‘돌아와요 아저씨’ 제작발표회에서 “우리(자신과 김수로)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다. 매 장면 액션신을 찍는 기분”이라며 “워낙 달달한 성격이라서 남자를 표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시집갈 수 있을 지가 걱정”이라며 시원하게 웃었다.

정지훈은 “처음에는 어깨가 무겁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촬영을 해보니 머릿 속에 영여있던 실타래가 풀리듯이 잘 풀렸다”며 “예전 PD님들과 달리 신운섭 PD님은 저를 안 믿어주시고 꼭 다시 교정을 해주신다. 많이 배우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을’이었던 영수가 ‘갑’인 해준으로 거듭나면서 권력의 맛을 본다. 어떻게 보면 권력의 남용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을을 위한 것이니 이해해주셨

으면 좋겠다”며 “드라마의 모토는 ‘세상 모든 을들의 반란’이다. 다시 태어나면서 외모 뿐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서 행동도 달라지는 영수의 모습도 관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또 “나를 버려야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김인권 선배님과 싱크로율을 위해 영화를 보고 성대모사를 연습했다”고 전했다.

2014년 MBC TV ‘양귀한 돌싱녀’ 이후 2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이민정은 “출산하고 나서 그런지 가족 이야기에 마음이 많이 움직이더라”며 “많은 분들이 웃고 을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나름의 기대와 바람이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응답하라 1988’의 치타여사 라미란이 영수와 기탁의 ‘역승’을 관리하는 ‘리라이프 메신저’ 마야 역으로 출연한다.

‘돌아와요 아저씨’는 일본 작가 아사다 지로의 ‘쓰바키야마 과장의 7일간’을 원작으로 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영화로 만들어진 바 있다.

24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영화 ‘남과 여’ 공유

“불륜 보다 사랑을 봤죠”



배우 공유가 처음으로 멜로라는 장르에 도전했다. 멜로영화는 ‘한물갔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영화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의외의 선택이다.

그는 멜로를 선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30대 중후반일 때 마냥 말랑말랑하지 않은 사람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전도연 선배와 같이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영화를 해보고 싶었다”는 것.

그는 “두 부분이 운 좋게 맞아떨어진 작품이어서 출연을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며 “지금 이 순간의 나이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멜로영화가 소외를 받는 현실에 대해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쓴소리’를 했다.

“관객입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류의 영화를 보러 갈 때 상영횟수가 적고 상영장소가 부족해 아쉬움을 느껴왔다. 멜로라서 아니라 소외받는 장르가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돈이 되는 영화만 만드는 것은 안되지 않나. 요즘 너무 그렇게 가지 않나 생각한다.”

‘남과 여’는 낯선 곳에서 만난 남과 여가 오랜만에 자신을 ‘남자’와 ‘여자’로 느끼고 나눴던 감정을 일상에까지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그린 영화다.

공유는 핀란드 국제학교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디자이너 가게 대표인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는 건축가 ‘기홍’을 연기했다.

소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불륜이다. 더

군다나 공유가 연기한 기홍과 상대 배우인 전도연이 맡은 상민 둘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자녀가 있다. 윤리적인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유는 이에 대해 “불륜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사랑을 봤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촬영 현장에서도 감독과 전도연 선배와 늘 사랑 이야기만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건 사랑이 아니고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불륜도 사랑이다. 불륜이라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반문했다.

공유는 영화의 기홍과 자신이 닮았다고 평가했다. 영화에서 기홍은 자신에게 “애매하게 산다”고 자책하는 장면이 나오는 데, 그 대사가 “제 말 같았다”고 했다.

또 “영화를 본 여성 관객들이 나쁜 놈이라고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기홍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영화에서 금단의 사랑에 빠진 두 남녀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 공유가 “기홍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홍의 그 선택을 두고 한 말이다.

‘남과 여’는 그가 ‘용의자’(2013) 이후 오랜만에 출연한 영화다.

올해 이 영화뿐 아니라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과 김지운 감독의 ‘밀정’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그는 “세 작품이 장르가 다르고 제가 연기한 캐릭터가 달라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고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콧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끝돈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드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⑪ 4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킹 특선 〈합성의 전설〉 55 안녕 우리말(재)	00 월화드라마 〈무림학교〉(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닥터 365 15 세상발견 유레카(재)	
⑫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	
①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우리 사는 세상(재)	00 특집 영마의 다섯번째 계절(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② 30 직언직설	00 명인(재) 45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00 키즈 사이언스 5	00 토크콘서트 화통(재)	
③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튠튼생활제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리핑	
④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추재파일 K(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일일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안녕 자두야	
⑤ 3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사람과 사람들(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토크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⑦ 0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⑧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우리집 끝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인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⑪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0 동상이몽 관찰야 관찰야	
⑫ 40 개밥주는 남자 (재)	20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포스터〉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요리비전 06:10 EBS 인문학 특강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로보가 놀리 08:00 뽀롱뽀롱 뽀로로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크래명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생활 보감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1 13:05 지식채널e 13:10 프레임 인 13:40 즐겨운 수학 EBS MATH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4:00 미술탐험대 14: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꼬마기사 마이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래명의 창의력 팡팡(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뽀롱뽀롱 뽀로로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로보가 놀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18:05 캐니멀 18:2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2 18:25 두키 탐험대 18:4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18:45 발명야 팡팡!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 21:30 한국기행 〈겨울 지리산에 가면〉 21:50 EBS 다큐 프레임 〈결혼의 진화〉 22:45 달라졌어요 23:35 세계견문록 아트라스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인문학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2일 (음 1월 15일 甲戌)			
子	48년생 가장 절실한 일에 몰두하자. 60년생 본디의 상대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노심조사할 필요가 없다. 72년생 지속적이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84년생 조짐이 심상찮으니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3, 25	午	42년생 정황을 뒤집을 만한 일이 발생하리라. 54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는 면모이나, 66년생 체면 처리라다가 심하게 꼬이는 수가 있다. 78년생 매우 하찮게 여겼던 바가 행운과 연결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59, 94
丑	49년생 무리하면서까지 억지로 행할 필요는 없느니라. 61년생 드러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다. 73년생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개선되는 위상이나, 85년생 이웃과의 관계가 긴요하다. 행운의 숫자 : 47, 89	未	43년생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오하고 있는 편이 더 낫다. 55년생 결기지를 무시하고 주된 것에 몰입하라. 67년생 차분하게 마음먹고 실행은 민첩하게 하자. 79년생 적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집이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90, 60
寅	50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느니라. 62년생 미움함을 돌이켜 본다면 훌륭한 결과를 얻으리라. 74년생 실제의 현장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86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26, 48	申	44년생 새로운 길목에 들어선다. 56년생 금전적 이익과 연결되는 판세이다 68년생 확실한 기회라고 볼 수 있으니 도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낫다. 80년생 불가피하다면 속명으로 알고 수용하라. 행운의 숫자 : 12, 04
卯	51년생 협조자는 보이나 진행은 지연된다. 63년생 의무를 다한 다면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리라. 75년생 예상 밖의 손실이 보이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87년생 조금만 자제한다면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72	酉	45년생 별짓 없으니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다. 57년생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설득력을 갖게 되리라. 69년생 여러 사람과 얽혀서 복잡해지는 성국이다. 81년생 폭이 넓어지고 가지 수가 점점 많아지는 단계이나, 행운의 숫자 : 20, 96
辰	40년생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할 것이다. 52년생 개선하라. 64년생 진행 방향은 바르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76년생 두루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88년생 정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회하는 편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24, 92	戌	46년생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58년생 여러 가지 행운이 보따리 채울 수가 있도다. 70년생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82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머지않아서 호전되겠다. 행운의 숫자 : 33, 69
巳	41년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대응하라. 53년생 완벽을 추구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 같다. 65년생 간 단명료한 것이 최상이다. 77년생 예방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89년생 기쁨이 조성되리라. 행운의 숫자 : 37, 88	亥	47년생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는 법이다. 59년생 내용이 알찬 만큼 포장까지 깔끔하다면 금상첨화이나, 71년생 지나치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83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5, 7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			